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

무역, 투자, 원조 그리고 국제금융

이기영*·양문수**

본 연구는 북한에서 정기 간행되는 학술지에 실린 문헌들을 분석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은 이전 시대에 비해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국내 경제 발전과 외화수입을 위해서이다. 북한 문헌들에서는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 '물질적 담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문헌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환율, 국제 금시장, 외화수지, 신용 등에 대한 인식 확대가 두드러진다. 넷째, 대외경제협력을 구성하는 부문별로 변화의 양상은 달랐다. 대외무역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투자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개방적인 시각과 보수적인 시각이 혼재된 경향을 보였으나 2022년 이후 투자 관련 문헌들이 증가하고 내용도 구체화되고 있어 향후 인식과 제도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원조와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에서 여전히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지만, 70여 년간 명시적 비판만을 쏟아 내는 관계에서 우호적인 협력 가능성을 조금 이나마 엿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의미미하다.

주제어: 북한, 대외경제, 경제협력, 무역, 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원조,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시대적으로 김정은 집권기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에서 대외경제협력이라 함은 대외개방의 확대를 의미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정은은 2010년 9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 등장하며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후계자가 되었고,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북한 최고권력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김정은이 집권을 시작했을 당시 북한은 화폐개혁이나 종합시장 폐쇄와 같은 반시장적 정책들로 인한 물가 폭등, 상품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억제 정책을 철회한 상태였다. 즉, 김정은은 북한경제에서 점진적으로 시장 규제가 약화되던 시기에 최고지도자로 등장했고,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시장에 비적대적인 정책 기조를 북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대내적 특징이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대외경제협력의 분석 단위를 기본적으로 ‘무역’, ‘투자’, ‘원조’로 구분하는데, 이는 양문수¹⁾의 연구를 참고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경제권이 무너지면서 북한은 대내외적 경제위기를 맞이했고 대외개방을 확대해 외부로부터 자원을 들여올

1) 양문수,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이수훈 엮음, 『동북아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파주: 한울엠플러스, 2011), 97-126쪽.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북한은 대외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1992년 새로운 무역체제, 1994년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공식화하고, 1984년 합영법, 1992년 외국인투자법, 1997년 무역법을 차례로 제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외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문은 무역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도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을 주로 다루어 왔다. 본 연구는 대외무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투자’, ‘원조’ 부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점, 김정은 시대 새롭게 등장하는 대외경제협력 부문에 대해 분석한다는 점 등에서 관련 연구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을 관찰하는 도구로 북한에서 발간된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정치법률연구』, 『사회과학원학보』 등 4종의 정기간행물을 주로 사용한다. 물론, 북한처럼 폐쇄적인 국가의 경우 내부 문건이 쉽게 공개되지 않고 공개되는 문헌들은 정권 찬양이나 선전, 선동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헌들이 북한 당국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경제의 동향이나 정책 기조의 변화 등 북한의 내부 인식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접근성, 자료의 분량 등에 있어 북한 문헌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북한경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자료 부족은 늘 제기되는 문제이다. 경제 분야의 특성상 북한의 경제협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는 통계 자료겠지만, 북한의 폐쇄적인 상황으로 인해 매우 한정적인 통계와 추정치를 사용하여 한정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북한에서 발표하는 신문기사, 논문 등 문헌자료는 통계자료에 비해 분량도 많고 접근이 가능해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북한경제의 동향이나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문수,²⁾ 이주철,³⁾ 양문수⁴⁾는 북한 문헌을 활용한 연구 방식과 그 중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이후, 연구자가 북한 문헌을 직접 읽고 분류하는 방식으로 북한경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등장했고,⁵⁾ 나아가 기술의 발전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북한 문헌을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북한경제 연구들도 등장하였다.⁶⁾

북한 내부에서 발간된 자료를 통해 연구하기 좋은 주제 중 하나는 북한이 관련 주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협력 분야와 관련하여 이러한 연구 사례는 2010년

-
- 2) 양문수, “북한경제 연구방법론: 시각, 자료, 분석틀을 중심으로,” 경남대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파주: 한울엠플러스, 2003), 209~238쪽.
 - 3) 이주철, “북한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의 활용,”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파주: 한울엠플러스, 2003), 116~146쪽.
 - 4) 양문수,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연구』의 사례,” 『현대북한연구』, 제12권 2호(2009), 7~61쪽.
 - 5) 이창희, “「경제연구(1986~1999)」로 바라본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고찰,” 『북한학연구』, 제6권 2호(2010), 147~186쪽; Changyoung Choi and Jesse D. Lecy,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Governance*, Vol. 25, No. 4(2012), pp. 589~616; 임주현, “「경제연구」 분석에 기초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통일인문학』, 제71집(2017), 235~272쪽; 나정원,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영학 연구동향: 학술지 ‘경제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2권 1호(2018), 57~85쪽.
 - 6) 김수현·손옥, 『북한 「경제연구」로 분석한 경제정책 변화: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 BOK 경제연구 제2020-6호(서울: 한국은행, 2020); 이형중 외,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북한의 대내외 인식 변화 분석: 2016부터 2019년까지의 로동신문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7권 제2호(2021), 86~121쪽.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며, 현재까지 연구의 수가 많지는 않아 각각의 연구가 귀중한 자료가 된다. 각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탁용달⁷⁾은 북한의 공간문헌을 분석하여 북한의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과 그 속에서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세계시장과 대외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유지해 왔지만, 김정일 시대에 들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때로는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 변화에 기초하여 대외경제정책이 변화하고 무역 제도와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즉, 북한에서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된 후 정책의 수정이 나타나는 순서로 대외경제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양문수⁸⁾는 국가 간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대외경제관계(대외무역, 외국인투자, 해외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 동북아 경제협력(지역경제권, 동북아경제권, 라진선봉특구) 및 동북아지역 내 무역에 대한 인식 등 주제별로 구분하여 북한원전을 분석하였는데,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모두 발견하였다. 즉, 2011년 시점에서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행동은 일관성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을출⁹⁾은 북한 발간 자료 및 북한 법령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국제개발협력 제도에 대한 인식을 탐구했다. 부정적 인식을 보인 분야는 원조, 개발협력추진기구, 세계화, 미국 등이었고, 긍정적 인식을 보인 분야는

7) 탁용달, “북한의 세계경제에 관한 인식과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2000년대 전후를 중심으로,” 『북한학보』, 제35권 2호(2010), 125~162쪽.

8) 양문수,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9) 임을출, “동북아 개발협력: 북한의 인식과 법적 대응,” 이수훈 엮음, 『동북아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파주: 한울엠플러스, 2011), 127~170쪽.

역내 개도국 사이의 경제기술적 협력, 지역 간 금융협력 등이었다.

이재원¹⁰⁾은 1987~2010년 기간의 『경제연구』 내용을 분석하여 시기별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은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대외경제관계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대외경제를 구성하는 범주 중에서도 무역과 외국인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조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만을 보였다. 지역경제권에 대해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 지역권 국가들이 추진하는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김은영¹¹⁾의 연구는 경제학술지 및 언론매체에 나타난 대외경제 관련 담화가 북한의 대외환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보고, 1990~2011년 기간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원학보』, 『로동신문』에 게재된 대외경제 관련 글들을 전수 조사하여 주제별, 논조별, 형태별로 지표화하고 그 변화 추세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대외경제라고 했지만 사실상 대외무역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연구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문헌은 과거의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대외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주제들로 확대,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관심 영역 역시 다양해지고 구체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영철¹²⁾은 『경제연구』 등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북한의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에 세계경제를

10) 이재원,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인식: 『경제연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1) 김은영,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담화 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12월호(2012), 46~78쪽.

12) 정영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세계경제 인식의 변화: 침략과 약탈의 공간에서 생존과 경쟁의 공간으로,” 『통일과 평화』, 제10집 1호(2018), 187~230쪽.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인식했지만, 이제는 세계경제를 생존과 경쟁의 공간이자 자신들이 직접 상대해야 할 경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문헌들은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세계경제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면서도, 이 공간 속에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생존의 방식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김지영¹³⁾은 1949~2018년 기간의 『로동신문』 기사를 전수 분석하여 대외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시대별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은 근본적으로 원조를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으나,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정권에 따라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났다. 특히 김정은 시대 이후에는 국제사회원조 논의와 아프리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제사회와의 개발협력 파트너십 형성에 이전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 문헌 분석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 양상을 도출해냄으로써 현재까지 축적된 김정은 시대 이전에 대한 선행연구에 부가가치를 더하며 향후 북한 원전을 활용한 연구 성과를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3) 김정은 집권 이전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인식

본 절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전 북한 문헌에 나타난 북한의 대외경제 협력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다. 김정일은 2011년 12월 사망했고, 같은 시기 양문수¹⁴⁾, 이재원¹⁵⁾, 김은영¹⁶⁾ 등의 선행연구에서 김정은 집권

13) 김지영, “대외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 연구: 로동신문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1권 3호(2019), 17~38쪽.

이전까지 북한 문헌에 나타나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은 이미 상당 부분 분석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무역’, ‘투자’, ‘원조’ 각각에 대한 김정은 시대 이전의 인식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92년 새로운 무역체계, 1994년 무역제일주의 방침 아래, 1997년 무역법을 제정하고 1999년과 2004년 개정된 일련의 과정은 북한에서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 시기 북한 문헌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 대외무역임을 확실히 표명했고, 대외무역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자신들만의 자주성을 고수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대외무역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무역시장의 다변화, 무역 형태의 다변화 같은 대외무역의 다변화도 북한 문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다음으로 투자 부문이다. 북한에서는 사실상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1984년 합영법 제정과 함께 등장했다. 무역 부문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경제에서는 외화 수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투자로 인한 경제적 예측의 위험성, 자본주의적 요소의 유입 등 정치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나 법·제도, 정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과 소극적인 인식이 혼재되어 번갈아 가며 나타난다.

14) 양문수,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15) 이재원,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인식”.

16) 김은영,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담화 분석”.

마지막으로 원조 부문인데, 원조와 원조를 주로 이행하는 국제금융 기구에 대한 북한의 기본 인식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편이었다. 원조나 차관에 의존하는 것은 경제적 예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일성 경우,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원조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원조에 대해서도 ‘두 번째’라고 표현하며 경제발전에 있어 자력갱생이 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¹⁷⁾ 하지만 일부 북한 문헌에서 드러나는 바에 따르면, 이 시기 북한은 원조 및 원조기구들에 대한 객관적 정보는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⁸⁾

결론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전의 북한은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 문헌들에서 무역, 투자, 원조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인식 변화

2019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의 내용은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인식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다음 문구는 대외경제협력 관련 북한 문헌에서 수차례 인용된다.

17) 김일성, “에파도르 좌익민주당 대표단과 한 담화”(1991.5.3.), 『김일성 저작집』, 제4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61쪽.

18) 황순화, “남조선에 대한 국제통화기금 <구제용자>의 침략적, 랍탈적 성격,” 『경제연구』, 제4호(1999), 54~56쪽; 김성호, “국제통화기금협정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랍탈의 법적수단,”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1호(2003), 59~64쪽; 김성호, “국제금융기구의 분류와 일반적특징,” 『정치법률연구』, 제2호(2006), 36~37쪽.

대외경제부문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철저히 입각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부분과 고리를 보충하는 방향에서 대외경제협조와 기술교류, 무역활동을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책략있게 벌려야 합니다.¹⁹⁾

본 장에서는 위의 발언에 기초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인식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고리를 보충하는 방향', '기술교류', '다각적으로 벌린다'는 표현 등에서 김정은 시대의 특징이 나타난다.

1) 경제외교 개념의 등장

김정은 집권기 북한 문헌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던 '경제외교'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경제외교'라는 표현은 북한에 대해 연구하는 국내연구에서는 사용된 바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 사용된 것은 김정은 시대에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2020년 들어 '경제외교'를 언급하는 글들이 다수 발표된다. 과거의 문헌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이 사용되지 않았던 만큼,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전략적 변화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에서 발간된 '경제외교' 관련 문헌들을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이 생각하는 '경제외교'의 개념은 물론, '경제외교'를 위시한 대외경제협력의 중요성, 범위 등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인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우선, 북한 문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제외교'란 국가가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들과의 직접적인 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의 관심사나

19) 김정은, 『2019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2019.4.13.).

제기된 문제를 협의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여러 가지 대외사업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는 변화하는 세계 정치, 경제, 군사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다른 나라들과 맺은 경제관계의 폭과 심도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²⁰⁾ 이 대목은 특히 세계정세는 변화하며 북한이 이 변화에 맞게 경제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현 시기의 경제관계는 국제관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세계적, 지역적 범위의 경제기구들이 새롭게 출현하고 확대되면서 나라들 사이의 경제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대외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²¹⁾ 여기서 '세계적, 지역적 범위의 경제기구들이 새롭게 출현하고 확대' 된다는 표현은 뒤에서 설명하게 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이나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NDB), 북한에서는 '브릭스개발은행' 또는 '브릭스신개발은행'으로 부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경제외교를 하는 이유를 물질적 담보 및 경제적 이익, 즉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라고 설명하는데, 서광명과 리성혁의 글에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주적인 경제외교관계의 확대발전은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 친선협조관계를 물질적으로 담보해준다. (중략) 지금 많은 나라들이 정부적 및 비정부적국제경제기구들에 참가하여 해당한 국제경제분야에서 리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각종 협약들을 체결하고 그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한 경제외교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는것은 더 많은 경제

20) 최건용, "경제외교는 대외경제관계확대발전의 기본담보," 『경제연구』, 제1호(2020), 25쪽.

21) 위의 글, 25쪽.

적리익을 얻자는데 있다.²²⁾

경제외교협상이 모든 나라들이 단결하고 협조하기 위한 주요수단의 하나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경제적인 리익을 위하여 협상 당사자들이 호상의존하게 하기 때문이다.²³⁾

마지막으로 경제외교의 범위는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협력 관련 북한 문헌에서 두드러지게 변화를 보이는 부분이다. 김현철은 대외경제 관계를 맺는 나라와 지역의 수가 양적으로 많은 것보다는 그 분포상태가 포괄적인 구조여야 한다고 서술하며,²⁴⁾ 서광명은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가 있는 나라는 물론 없거나 비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경제적인 교섭과 교류도 강화하여 경제외교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²⁵⁾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의 배경은 2018년 정권수립 70주년(9·9절)을 앞두고 발표한 김정은 담화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담화에서 김정은은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교류 협력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 바 있다.

우리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자본주의나라들과의 다방면적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²⁶⁾

-
- 22) 서광명, “현시기 경제외교관계확대발전의 기본요구,” 『경제연구』, 제1호(2020), 20쪽.
23) 리성혁, “경제외교협상은 모든 나라들이 단결하고 협조하기 위한 주요수단의 하나,” 『경제연구』, 제2호(2020), 30쪽.
24) 김현철, “현시기 대외무역협상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대외무역발전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제2호(2019), 44~45쪽.
25) 서광명, “현시기 경제외교관계확대발전의 기본요구,” 20쪽.
26) 김금경, “중양아시아나라들의 자원을 둘러싼 대국들의 대립과 모순의 첨예화,”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다음 절부터는 대외경제협력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북한의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다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 무역, 투자, 원조뿐 아니라 국제금융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국제금융에 대한 새로운 인식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금융에 대한 인식 확대

정책적으로 대외경제협력, 즉 ‘경제외교’ 확대에 주력하게 되면서 김정은 집권기의 북한 문헌들에서는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인식 확대가 드러난다. 로청봉,²⁷⁾ 리혜심,²⁸⁾ 리명숙,²⁹⁾ 홍기송,³⁰⁾ 김경민³¹⁾과 같은 국제금융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들을 기반으로,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다. 물론 리룡일³²⁾ 등에서 국제금융거래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등 북

『경제연구』, 제4호(2016), 63~64쪽에서 재인용.

- 27) 로청봉, “국외투자환경의 주요내용,” 『김일성대학보집(철학, 경제학)』, 제2호(2012), 132~135쪽.
- 28) 리혜심, “국제금융위험과 그것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일성대학보집(철학, 경제학)』, 제2호(2013), 144~146쪽.
- 29) 리명숙, “국제증권투자에서의 위험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대학보집(철학, 경제학)』, 제3호(2015), 138~140쪽.
- 30) 홍기송, “외화보증금거래출현의 원인,” 『경제연구』, 제4호(2019), 56~57쪽.
- 31) 김경민, “파생금융상품투자에서 리용되는 몇가지 방법에 대하여,” 『사회과학원학보』, 제2호(2020), 39~40쪽.
- 32) 리룡일, “국제금융시장에서 교환거래의 확대와 그 특징,” 『경제연구』, 제4호(2017), 57~58쪽.

〈표 1〉 2012~2023년 북한에서 발간된 환율 관련 문헌(정기간행물)

간행물	논문 제목	저자	권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경제학)	환자전은 제국주의의 부착물	김두선	2015-2호
	국제금융시장위험과 그 대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순학	2016-4호
	환자시세변동이 자본주의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두선	
	국제환율제도와 그 특징	김양호	2021-1호
경제연구	기술적분석에 의한 환자시세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도	김은정	2012-3호
	국제금융위험과 그것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리혜심	2015-4호
	현시기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그 특징	김은정	
	환자시세변동에 대한 통계적분석의 몇가지문제	한호운	2016-1호
	KNN예측방법을 리용한 환자시세의 예측가능성분석에 대한 리해	김경민	
	환자시세예측에서 신경망을 통한 기술적분석 방법과 요인적 분석방법의 결합	김주혁	2016-2호
	환자시세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김진혁	2016-3호
	환율예측에서 숨은마르코브모형의 응용	정성남	2017-2호
	환율의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방도에 대하여	안승진	
	환자시세변동위험과 환자조작수법	윤지성	2017-3호
	국제금융시장에서 교환거래의 확대와 그 특징	리룡일	2017-4호
	통일적인 환율관리체제와 그 확립의 필요성	김명금	2018-1호
	기한부환자거래와 기한부환자시세의 결정방법	조금성	
	통화교환과 그의 가격결정	홍철학	2020-2호
사회과학원학보	환자시세의 리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리룡일	2022-2호

자료: 필자 작성.

한이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의 정확성이나 구체성보다도 국제금융시장과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북한의 인식 확대 그 자체로도 현재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환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는데, 김정일 시대에는 환율과 관련한 문헌은 드물게 발견되며³³⁾ 2009년 『경제연구』에서 ‘외국환자시장’에 대한 토막상식 정도 다뤄지는 수준에 불과했지만³⁴⁾, 김정은 집권 후 2015년 이후로는 매년 환율 관련 내용을 다루는 글을 1개 이상 발견할 수 있다(〈표 1〉 참고).

이뿐만 아니라, 고윤정³⁵⁾은 북한의 국제 금시장에 대한 관심까지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북한의 변화는 김두선의 글에서 그 배경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국제준비통화의 환자 시세가 저하되면 발전도상 나라들은 자본주의 나라들에 비하여 훨씬 큰 손실을 본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발전도상 나라 국제준비에서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의 화폐 시세 변동은 세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지하고 있다.³⁶⁾ 또한, ‘한 나라 화폐의 시세저하는 해당

33) 윤경로, “환자시세변화와 통화팽창에 의한 국제시장가격변동,” 『경제연구』, 제1호(2002), 41~44쪽; 황한욱, “세계적으로 우심한 환자시세파동과 그 요인,” 『경제연구』, 제2호(2006), 46~48쪽; 김수정, “환자시세예측에서 칼만러파예측모형,” 『경제연구』, 제2호(2011), 55쪽.

34) “외국환자시장,” 『경제연구』, 제4호(2009), 7쪽.

35) 고윤정, “국제금시장에서 금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경제연구』, 제2호(2012), 58~60쪽; 고윤정, “국제금시장리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일성대학보집(철학, 경제학)』, 제2호(2012), 140~143쪽.

36) 김두선, “환자시세변동이 자본주의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일성대학보집(철학, 경제학)』, 제4호(2016), 149쪽.

나라에서 물가가 올라가게 한다’³⁷⁾고 함으로써, 북한이 환율의 변화로 인한 ‘물가’의 변동 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가’라는 개념의 등장은 물론 물가가 대외경제 관계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북한에게 있어 상당한 변화이다. 즉, 북한이 국제금융시장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준철의 글에서는 대북제재, 특히 금융제재로 인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를 고립압살하며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과 진행하는 경제거래를 막고 특히 경제제재, 금융제재를 실시함으로써 대외금융거래분야에서는 일련의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금융제재를 뚫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관계를 확대해나가려면 다양한 금융거래에 참가하기 위한 방안을 개척하여야 한다.³⁸⁾

그 외 이 시기 국제금융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보이는 인식의 특징은 강경희³⁹⁾, 장명삼⁴⁰⁾, 리남웅⁴¹⁾ 등 외화수지 문제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보인다는 점과 김영철⁴²⁾, 문영진⁴³⁾, 리명심⁴⁴⁾ 등 국제거래에서 ‘신

37) 위의 글, 150쪽.

38) 김준철, “금리교환거래와 그 특징,” 『김일성대학보집(철학, 경제학)』, 제3호(2013), 120~122쪽.

39) 강경희 “외화수지불균형과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경제연구』, 제3호(2012), 55~56쪽.

40) 장명삼, “외화수지계획의 본질적내용,” 『경제연구』, 제1호(2018), 51쪽.

41) 리남웅, “외화준비에 대한 관리와 그 내용,” 『경제연구』, 제4호(2019), 57~59쪽.

42) 김영철, “대외경제거래에서 신용위험의 발생요인,” 『경제연구』, 제3호(2012),

용'의 개념 및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들 간의 무역 시장, 상품, 환율 등이 구성하는 유기적 관계에 대해 인식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절부터 분석할 무역, 투자, 원조 부문에서의 거래 관계와도 연관된다.

3) 무역에 대한 인식

무역은 북한이 대외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시해 온 분야인 만큼 그동안 개방적인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도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무역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우선 김정은 시대에 들어 기술무역에 대한 문헌의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술무역과 함께 '기술협력', '기술교류', '기술봉사'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김영,⁴⁵⁾ 서광명,⁴⁶⁾ 장금주,⁴⁷⁾ 장순남⁴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외무역, 대외관계, 대외경제협조를 늘려 나가는 방안에서 기술무역, 기술교류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57~58쪽.

43) 문영진,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평가와 그 방법," 『경제연구』, 제2호(2016), 53~54쪽.

44) 리명심, "국제은행신용과 그 특징," 『경제연구』, 제2호(2017), 50쪽.

45) 김영, "현시기 나라의 대외무역구조 개선의 기본방향," 『경제연구』, 제4호(2019), 44~45쪽.

46) 서광명, "현시기 경제외교관계확대발전의 기본요구".

47) 장금주,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대외경제발전전략작성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제2호(2020), 14~16쪽.

48) 장순남, "기술무역의 비중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1호(2023).

장순남에 따르면, 북한이 생각하는 기술무역이란 기술상품을 유상적 조건에 기초해 나라들 사이에 거래하는 무역의 한 형태로, 북한에는 새 기술개발 능력, 기술지도 능력이 있는 대학, 과학연구기관, 과학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생산기업체와 같이 기술무역을 진행할 수 있는 단위들이 적지 않다. 기술무역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북한에는 석탄과 철광석을 비롯한 여러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고 쓰고 남은 것 가운데서도 대외적 수요가 높고, 값이 비싼 것 중 수출 원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아무리 풍부한 자원이라도 그것은 아껴 쓰고 절약해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지 헐값으로 파는 것은 나라의 장래와 경제의 전망적 발전을 생각하지 않는 현상이라는 것이다.⁴⁹⁾

기술무역과 관련하여 2019년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 총화에서 있었던 김정은의 다음 발언은 이후 북한 문헌에서 수차례 인용되고 강조된다.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일변도를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하여야 합니다.⁵⁰⁾

같은 맥락에서 김영⁵¹⁾, 김인복⁵²⁾ 등은 봉사무역, 건설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 무역거래에서 상품을 넘어서 기

49) 위의 글.

50)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56쪽.

51) 김영, “현시기 나라의 대외무역구조 개선의 기본방향,” 44~45쪽.

52) 김인복, “대외건설을 활성화하는 것은 대외무역을 다각화하기 위한 중요방도,” 『사회과학원학보』, 제1호(2020), 39쪽.

술, 서비스, 노동력 등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외화 획득에 나서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시기 북한 문헌들은 무역 분야에서 발전도상 나라들 사이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발전도상 나라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은 이전 시대에도 중시되었지만, 김정은 시대의 문헌은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사례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리경영⁵³⁾은 발전도상 나라들 간의 무역거래에서 결제 방식을 논한다. 이 글에서 발전도상 나라들 간의 무역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도상 나라들 간에 경제지역 및 지역적 통화금융기구 창설, 그리고 지역적결제동맹, 지불기구, 지역별개발은행, 공동기금, 통화동맹 조직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로 지역적경제동맹과 지불기구로는 중앙아메리카결제국, 아랍과세 및 지불동맹, 아랍통화기금, 지역적인 공동기금과 개발은행으로는 중앙아메리카은행연합체, 안데스개발회사, 카리브개발은행, 플렉블가담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발전을 위한 연대성기금, 제11차 상품공급기금, 통화기금, 개발기금, 안정기금 등을 들고 있다. 특히, ALBA(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라틴아메리카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동맹) 회원국들이 2010년부터 무역거래에서 미 달러화 대신 회원국들의 공동화폐 수크레를 사용한다는 사례도 언급한다.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하지와는 별개로 북한이 발전도상 나라들과의 무역거래를 확대하고 금융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그동안 대외무역을 폭넓게 하지 못한 이유에 대

53) 리경영, “자본주의국제경제질서를 반대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 『김일성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4호(2013), 130~134쪽; 리경영,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금융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문제,” 『경제연구』, 제4호(2016), 61~63쪽.

한 객관적 자기반성을 드러내는 것이 눈에 띈다. 관련하여 김현철의 글에 나타난 그 설명과 대처방안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시기 대외무역부문에서 일변도를 없애지 못하고 대외무역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대외무역협상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실정과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세계무역발전추세에 맞게 개선해나가지 못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대외무역협상을 위한 상대국들의 포괄범위가 특정한 나라와 지역에 편중되어있었으며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빠른 속도로 형성확대되고있는 자유무역지대들, 공동시장 그리고 경제동맹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무역시장들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리용하기 위한 무역협상전략과 전술들을 원만히 활용하지 못하였다.⁵⁴⁾

이처럼 국제경제체제나 제국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을 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내부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인 분석이다.

4) 투자에 대한 인식

투자 분야의 경우, 김정은 시대 이전에 비해 인식이 달라진 부분이 분명 보이긴 하지만, 무역 분야처럼 인식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 김정은 시대 이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과 보수적인 입장이 혼재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16~18년에는 외국인 투자 관련 문헌이 매해 15개 내외로 발간되어 10개 미만

54) 김현철, “현시기 대외무역협상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대외무역발전의 필수적요구,” 44~45쪽.

〈표 2〉 2022~2023년 북한에서 발간된 투자 관련 문헌(정기간행물)

간행물	논문 제목	저자	권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	BOT투자계약체결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문정남	2022-1호
	합영, 합작기업의 경영계획작성에서 스위트분석방법의 합리적리용	김경렬	
	외국인투자기업류동재산에 대한 재정관리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창일	
	경제개발구 부동산의 가치평가방법에 대하여	김경렬	2022-2호
	국제투자에서 부양비의 영향과 그 타산	정철송	
	합인방식에 의한 합영, 합작대상투자의 경제적효과성타산	문정남	2023-1호

자료: 필자 작성.

발간된 전후의 기간에 비해 문헌 발간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보여 준다. 반면, 2019년부터는 발간 문헌의 수가 다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투자 계획 수립, 외국인투자를 통한 세수 확보 등 당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만, 2019년 이후에도 ‘경제개발구’, ‘라진항’, ‘철길통로’ 등에 대한 언급이 관찰되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⁵⁵⁾ 또한, 2022~2023년에 발표된 문헌들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시기 발간물에서는

55) 문성, “경제개발구의 투자대상목록작성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사회과학원학보』, 제2호(2020), 35~36쪽; 원철웅, “나라의 유리한 지정학적조건을 옹계 리용하는 것은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중요방도,” 『사회과학원학보』, 제2호(2020), 37~38쪽; 김경렬, “경제개발구 부동산의 가치평가방법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2호(2022), 62~70쪽.

무역이나 원조와 관련된 문헌은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투자 관련 문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향후 북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제금융제도에 대해서 북한당국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인식의 변화를 보이는 지점이다.

경제개발구내에서의 리자률 수준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리자률수준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⁵⁶⁾

투자유치계획의 특성은 첫째로, 투자유치계획이 국가의 법칙, 지령적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유치는 다른 나라의 투자가들과의 관계,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관계를 반영한다. (중략) 투자유치를 위한 자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나라들사이 경제교류실태와 국제경제기구, 국제조약과 법규, 국제관례에 대한 자료, 다른 나라들의 경제형편과 투자 및 투자유치실태, 해외투자에 리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외화보유고에 대한 자료, 개별적기업들에 대한 자료, 개별적투자자들에 대한 자료들이다.⁵⁷⁾

국가가 외국투자의 리용과 련관된 모든 단위들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경영활동에서 특수성을 띠는 외국투자기업들의 경영관리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간섭하면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⁵⁸⁾

56) 김정, “경제개발구의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대부 리자률제정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4호(2017), 57쪽.

57) 김봄미, “투자유치계획의 특성과 작성방법”, 『경제연구』, 제2호(2017), 51~53쪽.

58) 황철진, “외국투자리용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의 본질”, 『경제연구』, 제4

그리고 북한 당국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법적 토대도 마련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북한에는 이전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이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법령의 존재 여부가 북한의 저조한 외국인투자 실적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 문헌들에서 언급된 법령들의 내용 및 관계 법령 간의 상호 보완성과 일관성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화국외국인투자법 제4조에서는 국가가 외국인투자가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은행의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제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의 법적보호와 관련한 일반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제19조 1항에서는 국가가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은행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고 규제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는 법적담보를 주고 있다.⁵⁹⁾

한편,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통한 외화수입에 관심 있는 만큼 이 시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의 세수 확보에 대한 문헌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일찍이 김정은은 2015년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세무관리사업은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안정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며 국가외화수입을 늘이는데서 중요

호(2020), 60쪽.

59) 광이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관계법들에 구현된 기본원칙,” 『정치법률연구』, 제4호(2019), 35쪽.

한 역할을 합니다.⁶⁰⁾

그러나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 세제 관련 최신 문헌들인 로효심⁶¹⁾, 량경호⁶²⁾, 김순학⁶³⁾의 글조차 당위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합병기업과, 합작기업, 외국인 기업은 북한의 거주자 기업의 지위를 가지며 북한에서 얻은 소득뿐 아니라 북한 밖에서 이루어진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고⁶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외국투자 기업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세무 검열을 진행해 세법 위반 현상들에 대한 처리를 바로 하여야 한다고⁶⁵⁾ 밝히고 있다. 20여 년 전 리수경⁶⁶⁾이 작성한 외국투자 기업 및 외국인 세금제도가 가지는 의의에 관한 최초의 글에 나타난 인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김영⁶⁷⁾, 강남철⁶⁸⁾, 리명희⁶⁹⁾, 박정철·

-
- 60) 김정은, 『재정은행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015.12.13.).
- 61) 로효심,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합리적규정,” 『경제연구』, 제4호(2019), 59~60쪽.
- 62) 량경호,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특혜제도의 수립과 실시,” 『경제연구』, 제3호(2020), 57~58쪽.
- 63) 김순학, “합작기업들에서 투자상황방식에 따르는 소득세계산 방법개선에 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1호(2021), 57~65쪽.
- 64) 로효심,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합리적규정,” 59쪽.
- 65) 량경호,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특혜제도의 수립과 실시,” 57쪽.
- 66) 리수경, “우리나라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제도가 가지는 의의,” 『경제연구』, 제4호(1997), 19~20쪽.
- 67) 김영, “현시기 나라의 대외무역구조 개선의 기본방향,” 44~45쪽.
- 68) 강남철, “관광안내봉사의 특성,” 『사회과학원학보』, 제1호(2021), 32~33쪽.
- 69) 리명희, “관광사업활성화의 중요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1호(2021),

표혁철⁷⁰⁾ 등 다수의 글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산업을 다루고 있어 북한이 경제개발구는 물론이고 주요 외화수입을 위한 투자 분야로 관광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통계체계를 바로 세워야 전국가적 범위에서 외국투자의 이용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때에 파악할 수 있다면서⁷¹⁾ 투자 관련 통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뤘다는 점도 북한의 기존 인식에 비해 변화된 부분이다.

5) 원조에 대한 인식

원조는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분이다. 무역에 대한 인식은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하였고, 투자에 관한 인식은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긍정적 인식도 존재했던 반면, 원조 그리고 원조를 제공하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1940년대부터 201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일관되게 비판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북한 문헌에서 이전과는 다른 입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원조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명시적 비판이 줄어들고, 국제경제체제를 북한이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는 변화를 보인다. 또한, ‘아세안’, ‘브릭스’와 같은 국가 간 협조체제에 대한 글이 빈번히 나타난다. 물론 박철룡⁷²⁾과 같이 여전히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의 글도 여

11~13쪽.

70) 박정철·표혁철, “관광봉사료금제정에서 나서는 방법론적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2호(2023), 81~95쪽.

71) 황철진, “외국투자부문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관리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사회과학원학보』, 제1호(2021), 41쪽.

72) 박철룡,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용자를 통하여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예속화책동,” 『경제연구』, 제2호(2019), 60~61쪽.

전히 발견되고 있다.

우선 원조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이 시기 북한 문헌에서는 경제원조 방식이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면서 원조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 나라와 지역들과의 친선협조관계 발전에 영향을 주면서 대외경제협력을 추진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한다. 또한, 상호간의 경제적인 협력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원조는 대외경제협력 방식을 추동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원조방식을 잘 이용하여 대외경제협력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도 서술한다.⁷³⁾ 앞서 언급했듯 사회주의권 국가로부터의 원조에 대해서도 소극적 인식을 보여 온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경제외교협정들에 의하여 창설된 유엔 기구들과 세계적 및 지역적 국제경제기구들은 나라들 사이의 국제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⁷⁴⁾ ‘국제경제기구’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북한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제기구들과의 사업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⁷⁵⁾

특히, 2016년 AIIB와 NDB가 출범한 이후에는 이 두 기관이 국제금융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글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박진주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한편 현시기 국제통화관계의 다극화와 지역경제협력추세에 편승하여

73) 서광명, “현시기 경제외교관계확대발전의 기본요구,” 21쪽.

74) 최진용, “경제외교는 대외경제관계확대발전의 기본담보,” 24~26쪽.

75) 서광명, “현시기 경제외교관계확대발전의 기본요구,” 21쪽.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는 아시아기초투자기금과 브릭스신개발은행의 창설과 같은 지역금융기관들의 출현은 국제통화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각국이 필요한 자금수요를 조건부없는 대부자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⁷⁶⁾

또한, 유철민⁷⁷⁾은 북한에는 이러한 금융기구들의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경제적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며, 얼마든지 필요한 자금을 받아들여 효과적으로 이용해 나갈 수 있다고 국제금융기구에서 제공하는 자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한다.

북한이 AIIB와 같은 신생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김성수의 글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유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지역 나라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낡고 불공평한 국제금융통화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발전도상 나라들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⁷⁸⁾

북한이 아시아지역 내 그리고 개발도상국 간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AIIB와 NDB의 지배구조나 가입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북한이 그간 비판해 온 기존 국제금융기구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6) 박진주, “기능상변화를 통하여 본 국제통화기금의 취약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3호(2016), 145쪽.

77) 유철민, “현시기 국제금융관계에서 일어난 변화와 그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2호(2020), 83~90쪽.

78) 김성수,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이 창설되게 된 국제적배경,” 『경제연구』, 제3호(2017), 56~58쪽.

우선, AIIB의 협정문 제3조(Article 3 Membership)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의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또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회원국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⁷⁹⁾ 통상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IBRD 가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ADB 가입을 위해서는 최대 출자국인 미국과 일본의 동의를 필요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건이다. 한편, AIIB의 자본금은 1천억 달러로, 여타의 국제금융기구들과 같이 납입금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중국이 26.58%로 최대이고, 인도(7.60%), 러시아(5.98%), 독일(4.16%) 등이 뒤를 잇는다.⁸⁰⁾

NDB는 협정문 제2조(Article 2 Membership, Voting, Capital and Shares)에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회원국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⁸¹⁾ 북한은 이 부분은 충족하지만, NDB 역시 납입금 규모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NDB 설립국은 브릭스 국가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5개국으로, 각국에서 100억 달러씩 납입하여 총 500억 달러 자본금으로 출범하였다. 실제로 2021년 신규 회원국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브릭스 5개국이 동일 금액을 출자하여 각 20%의 투표권을 확보하였고, 마치 NDB 회원국 간 균등한 투표권을 보유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NDB는 신규 회원국들의 가입을 받아들여더라도 브릭스 5개국의 지분율을 5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는 NDB의 규모가 커지더

79)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rticles of Agreement*, Article 3, pp. 2-3.

80) AIIB, *2022 AIIB Annual Report* (Beijing: AIIB, 2023), pp.161~163.

81) NDB, *Agreement on the New Development Bank*, Article 2, p.1.

라도 브릭스가 기구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⁸²⁾ 2024년 현재 투표권 보유 현황은 설립국 5개국 각 18.98%, 그리고 이집트(2.27%), 방글라데시(1.79%), UAE(1.06%)의 순이다.⁸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IB나 NDB의 가입 조건, 지배 구조 등 운영 방식은 기존의 국제금융기구들과 매우 유사하다. 가입자 선정 기준과 대부 대상 규정이 발전도상국 위주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⁸⁴⁾ 북한의 해석에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이 신생 국제금융기구들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에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자금 조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 이는 북한의 원조, 차관, 및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경제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서도, 관련 지식과 정보를 상당 수준으로 축적하고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원조 및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향후 발간될 북한 문헌을 통해 그 방향과 정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본 연구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

82) 김남희, “[Why] 브릭스 ‘새개발은행’ 설립 ... 美 장악한 국제금융 재편,” 『조선비즈』, 2014년 7월 16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205285?sid=101>(검색일: 2024년 4월 28일).

83) New Development Bank Shareholding, <https://www.ndb.int/about-ndb/shareholding> (검색일: 2024년 5월 1일).

84) 유철민, “현시기 국제금융관계에서 일어난 변화와 그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 89쪽.

식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시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표방하는 북한 내부에서 시장화가 심화되면서 외부와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전문 학술지인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정치법률연구』, 『사회과학원학보』 등에 실린 관련 문헌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추적하고 그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들을 발견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은 이전 시대에 비해 점차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국제경제체제나 국제경제기구,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을 가했던 것과 달리 김정은 집권기 북한은 세계정세는 변화하며 북한이 이 변화에 맞게 경제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 시기 북한 문헌들에서는 ‘경제외교’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하며, 북한과 정식 외교 관계가 없거나 비우호적인 국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도 발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발전 추세에 맞지 않게 대외무역을 늘이지 않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보인다.

둘째, 이와 같이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내부 경제 발전과 외화 수입을 위해서이다. 북한 문헌들에서는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 ‘물질적 담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경제외교 확대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국제금융거러에 대한 문헌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환율, 국제금시장, 외화수지, 신용 등에 대한 인식 확대가 두드러진다. 관련 글들을 통해 북한이 국제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유기적 관계와 이로 인한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대외경제협력을 구성하는 무역, 투자, 원조, 각 부문별로 변화의 양상은 달랐다. 우선, 대외무역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졌고, 상품이나 천연자원 거래뿐만 아니라 기술무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났다. 개발도상국들과의 금융협력 방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투자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수용적인 입장과 보수적인 입장이 동시에 또는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 이후 투자 관련 문헌들이 증가하고 내용도 구체화되고 있어 향후 북한의 인식과 제도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원조와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대한 인식에서 여전히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지만 70여 년간 명시적 비판만을 쏟아 내는 관계에서 우호적인 협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문헌을 통해 분석해 본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대외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 문헌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북한 문헌에 드러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은 실제 북한의 행동 양상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대외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인식에도 주목하였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 대외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투고: 2024.06.27. / 수정: 2024.08.01. / 채택: 2024.08.09.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4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정은, 『재정은행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2015년 12월 13일).

_____,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16).

_____, 『2019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2019년 4월 13일).

2) 논문

강경희, “외화수지불균형과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경제연구』, 제3호(2012), 55~56쪽.

강남철, “관광안내봉사의 특성,” 『사회과학원학보』, 제1호(2021), 32~33쪽.

고윤정,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경제연구』, 제2호(2012), 58~60쪽.

_____, “국제금융시장리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일성대학보집(철학, 경제학)』, 제2호(2012), 140~143쪽.

곽이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관계법들에 구현된 기본원칙,” 『정치법률연구』, 제4호(2019), 34~36쪽.

김경렬, “경제개발구 부동산의 가치평가방법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2호(2022), 62~70쪽.

김경민, “파생금융상품투자에서 리용되는 몇가지 방법에 대하여,” 『사회과학원학보』, 제2호(2020), 39~40쪽.

김금정, “중아시아나라들의 자원을 둘러싼 대국들의 대립과 모순의 침례화,” 『경제연구』, 제4호(2016), 63~64쪽.

김두선, “환자시세변동이 자본주의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일성대학보집(철학, 경제학)』, 제4호(2016), 148~151쪽.

김봄미, “투자유치계획의 특성과 작성방법,” 『경제연구』, 제2호(2017), 51~53쪽.

김성수, “아시아하부구조투자은행이 창설되게 된 국제적배경,” 『경제연구』, 제3호(2017), 56~58쪽.

- 김성호, “국제통화기금협정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의 법적수단,”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1호(2003), 59~64쪽.
- _____, “국제금융기구의 분류와 일반적특징,” 『정치법률연구』, 제2호(2006), 36~37쪽.
- 김수정, “환자시세예측에서 칼만러파예측모형,” 『경제연구』, 제2호(2011), 55쪽.
- 김순학, “합작기업들에서 투자상환방식에 따르는 소득세계산 방법개선에 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1호(2021), 57~65쪽.
- 김영, “현시기 나라의 대외무역구조 개선의 기본방향,” 『경제연구』, 제4호(2019), 44~45쪽.
- 김영철, “대외경제거래에서 신용위험의 발생요인,” 『경제연구』, 제3호(2012), 57~58쪽.
- 김인복, “대외건설을 활성화하는 것은 대외무역을 다각화하기 위한 중요방도,” 『사회과학원학보』, 제1호(2020), 39쪽.
- 김정, “경제개발구의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대부 리자률제정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4호(2017), 56~57쪽.
- 김준철, “금리교환거래와 그 특징,” 『김일성대학보집(철학, 경제학)』, 제3호(2013), 120~122쪽.
- 김현철, “현시기 대외무역협상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대외무역발전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제2호(2019), 44~45쪽.
- 량경호,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특혜제도의 수립과 실시,” 『경제연구』, 제3호(2020), 57~58쪽.
- 로청봉, “국외투자환경의 주요내용,” 김일성대학보집(철학, 경제학), 제2호(2012), 132~135쪽.
- 로효심,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합리적규정,” 『경제연구』, 제4호(2019), 59~60쪽.
- 리경영, “자본주의국제경제질서를 반대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 『김일성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4호(2013), 130~134쪽.
- _____,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금융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경제연구』, 제4호(2016), 61~63쪽.
- 리남웅, “외화준비에 대한 관리와 그 내용,” 『경제연구』, 제4호(2019), 57~59쪽.
- 리룡일, “국제금융시장에서 교환거래의 확대와 그 특징,” 『경제연구』, 제4호(2017), 57~58쪽.
- 리명숙, “국제증권투자에서의 위험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대학보집(철학, 경제학)』, 제3호(2015), 138~140쪽.

- 리명심, “국제은행신용과 그 특징,” 『경제연구』, 제2호(2017), 50쪽.
- 리명희, “관광사업활성화의 중요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1호(2021), 11~13쪽.
- 리성혁, “경제외교협상은 모든 나라들이 단결하고 협조하기 위한 주요수단의 하나,” 『경제연구』, 제2호(2020), 30~31쪽.
- 리수경, “우리나라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제도가 가지는 의의,” 『경제연구』, 제4호(1997), 19~20쪽.
- 리혜심, “국제금융위험과 그것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일성대학보집(철학, 경제학)』, 제2호(2013), 144~146쪽.
- 문성, “경제개발구의 투자대상목록작성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사회과학원학보』, 제2호(2020), 35~36쪽.
- 문영진,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평가와 그 방법,” 『경제연구』, 제2호(2016), 53~54쪽.
- 박정철·표혁철, “관광봉사료금제정에서 나서는 방법론적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2호(2023), 81~95쪽.
- 박진주, “기능상변화를 통하여 본 국제통화기금의 취약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3호(2016), 143~146쪽.
- 박철룡,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용자를 통하여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전도상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억속화책동,” 『경제연구』, 제2호(2019), 60~61쪽.
- 서광명, “현시기 경제외교관계확대발전의 기본요구,” 『경제연구』, 제1호(2020), 20~22쪽.
- “외국환자시장,” 『경제연구』, 제4호(2009), 7쪽.
- 원철웅, “나라의 유리한 지정학적조건을 옹계 리용하는 것은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 시키기 위한 중요방도,” 『사회과학원학보』, 제2호(2020), 37~38쪽.
- 유철민, “현시기 국제금융관계에서 일어난 변화와 그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2호(2020), 83~90쪽.
- 윤경로, “환자시세변화와 통화평창에 의한 국제시장가격변동,” 『경제연구』, 제1호(2002), 41~44쪽.
- 장금주, “나라의 경제도대를 강화하기 위한 대외경제발전전략작성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제2호(2020), 14~16쪽.
- 장명삼, “외화수지계획의 본질적내용,” 『경제연구』, 제1호(2018), 51쪽.
- 장순남, “기술무역의 비중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

- 학)』, 제1호(2023).
- 최건용, “경제외교는 대외경제관계확대발전의 기본담보,” 『경제연구』, 제1호(2020), 24~26쪽.
- 홍기승, “외화보증금거래출현의 원인,” 『경제연구』, 제4호(2019), 56~57쪽.
- 황순화, “남조선에 대한 국제통화기금 <구제용자>의 침략적, 략탈적 성격,” 『경제연구』, 제4호(1999), 54~56쪽.
- 황철진, “외국투자리용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의 본질,” 『경제연구』, 제4호(2020), 60~66쪽.
- _____, “외국투자부문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관리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사회과학원학보』, 제1호(2021), 40~41쪽.
- 황한욱, “세계적으로 우심한 환자시세파동와 그 요인,” 『경제연구』, 제2호(2006), 46~48쪽.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파주: 한울엠플러스, 2003).
- 김수현·손옥, 『북한 「경제연구」로 분석한 경제정책 변화: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BOK 경제연구 제2020-6호)(서울: 한국은행, 2020).
- 양문수, “북한경제 연구방법론: 시각, 자료, 분석틀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파주: 한울엠플러스, 2003), 209~238쪽.
- _____,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이수훈 엮음, 『동북아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파주: 한울엠플러스, 2011), 97~126쪽.
- 이주철, “북한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의 활용,”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파주: 한울엠플러스, 2003), 116~146쪽.
- 임을출, “동북아 개발협력: 북한의 인식과 법제적 대응,” 이수훈 엮음, 『동북아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파주: 한울엠플러스, 2011), 127~170쪽.

2) 논문

- 김은영,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담화 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12월호(2012), 46~78쪽.
- 김지영, “대외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 연구: 로동신문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국제

- 개발협력연구』, 제11권 3호(2019), 17~38쪽.
- 나정원,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영학 연구동향: 학술지 ‘경제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2권 1호(2018), 57~85쪽.
- 양문수,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연구』의 사례,” 『현대북한연구』, 제12권 제2호, 2009, 7~61쪽.
- 이재원,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인식: 『경제연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창희, “「『경제연구(1986~1999)』로 바라본 북한의 경제계획에 대한 고찰,” 『북한학연구』, 제6권 2호(2010), 147~186쪽.
- 이형종·이규민·송상헌·유석훈,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북한의 대내외 인식 변화 분석: 2016부터 2019년까지의 로동신문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7권 2호(2021), 86~121쪽.
- 임주현, “「『경제연구』 분석에 기초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통일인문학』, 제71집(2017), 235~272쪽.
- 정영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세계경제 인식의 변화: 침략과 약탈의 공간에서 생존과 경쟁의 공간으로,” 『통일과 평화』, 제10집 1호(2018), 187~230쪽.
- 탁용달, “북한의 세계경제에 관한 인식과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2000년대 전후를 중심으로,” 『북한학보』, 제35권 2호(2010), 125~162쪽.

3) 기타 자료

- 김남희, “[Why] 브릭스 ‘新개발은행’ 설립 … 美 장악한 국제금융 재편,” 『조선비즈』, 2014년 7월 16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205285?sid=101>(검색일: 2024년 4월 28일).

3. 국외 자료

1) 단행본

-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rticles of Agreement* (2015).
 _____, *2022 AIB Annual Report* (Beijing: AiIB, 2023).
 NDB, *Agreement on the New Development Bank* (2015).

2) 논문

Choi, Changyoung and Jesse D. Lecy,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Governance*, Vol.25, No.4(2012), pp. 589~616.

3) 기타 자료

NDB 홈페이지, <https://www.ndb.int/about-ndb/shareholding>(검색일: 2024년 5월 1일).

Changes in Percep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during the Kim Jong Un Era

Trade, Investment, Aid, and International Finance

Lee, Kee Young(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

Yang, Moon-Soo(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analyzes articles from academic journals regularly published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changes in North Korea's perception of economic cooperation since Kim Jong Un assumed power in 2012.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findings were identified. First, during Kim Jong Un's era, there has been a gradual shift in perception toward economic cooperation in a more open direction. Second, the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aims at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and securing foreign exchange reserves. North Korean literature directly uses expressions like 'economic benefits' and 'material stagnation.' Third,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in literature related to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exchange rates, international gold markets, foreign exchange balances, and the concept of credit. Fourth,

patterns of change in sectors comprising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aid varied. The importance of external trade continued to grow, and articles related to investment have increased since 2022, showing a trend toward more detailed content, suggesting potential future changes in North Korea. Moreover, despite aid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not being top priorities in 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their view toward these sectors has shown a directional shift from explicit criticism over the past 70 years towar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ve relations.

Keywords: North Korea, external economy, economic cooperation, trade, invest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ai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